

마마무 솔라 “데뷔 6년 만에 솔로 데뷔, 떨리고 설렌다”

첫 싱글 ‘SPIT IT OUT’ 본연의 모습 그대로 표현

데뷔곡 ‘뺨어’, 나라는 사람 노래로 가사로 뺨어낸 곡

마마무 솔라가 데뷔 첫 싱글 앨범 ‘스핏 잇 아웃’ (SPIT IT OUT)에 대한 소개를 전했다.

솔라는 23일 오후 6시 타이틀곡 ‘뺨어’를 포함한 첫 싱글 ‘SPIT IT OUT’을 발표하고 본격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했다.

‘스핏 잇 아웃’은 솔라가 데뷔 6년 만에 발표하는 첫 솔로 싱글로, 솔라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내는 동시에 솔라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솔라는 그간 파워풀한 고음부터 섬세한 감성을 아우르는 탄탄한 가창력은 물론 남다른 퍼포먼스 실력을 선보여 온 만큼 첫 싱글 ‘스핏 잇 아웃’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데뷔 6년 만에 첫 싱글 ‘스핏 잇 아웃’을 발표하는 솔라의 일문일답이다.

- 데뷔 6년 만에 솔로로 데뷔하는 소감은.

▶ 그 무엇보다도 떨린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 많은 분들께서 함께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의 첫 앨범을 어떻게 봐주시길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다. 이번 첫 솔

로 싱글을 시작으로 솔라라는 사람의 음악적 에너지들을 많이 전달하고 싶다.

- 솔로 데뷔곡 ‘뺨어’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달라.

▶ 나라는 사람을 노래로 또 가사로 그대로 뺨어낸 곡이다. ‘뜨거운 입술로 뺨어’라는 가사가 많이 나오는데 뜨거운 저의 열정을 뺨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이번 앨범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 티저가 공개될 때마다 화제다. 삭발, 네일팁, 고무장갑 등 파격적인 콘셉트를 선보였는데, 어떻게 기획했나.

▶ 항상 자료들을 모아놓는 편인 것 같다. 옷가게를 가더라도 평상시에 입는 옷보다 무대에서 입어야 하는 옷을 많이 사는 편이다. 이번 앨범에서는 디자인 쪽에 일하고 있는 친언니의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다.

- 걸그룹으로는 파격적으로 삭발한 모습을 공개했다. 삭발 모습을 공개한 이유는.

▶ 첫 솔로 앨범이다 보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삭발로 표현해봤다. 많은 분들께서 만류했지만 나는 그것만이 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믿고 지지해주신 회사에 감

사드린다. 저도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동받았다.

- ‘뺨어’ 티저 이미지를 본 마마무 멤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서로 낯부끄러워한다. (웃음)

- 신곡 ‘뺨어’ 퍼포먼스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둔 부분과 킬링 파트 혹은 포인트 안무를 꼽자면.

▶ 지금 딱 꼽자면 ‘set fire’ 부분! 후렴구로 가기 전에 좀 더 흥을 돋우기 위한 구간인데 이때 발뒤꿈치에서 성냥을 켜고 부는 안무가 정말 마음에 든다.

- 솔로 아티스트로 내놓는 첫 앨범이다.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 이번 앨범을 통해 다음이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 오랜 시간 솔로 앨범을 기다려왔을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사실 이번에 팬분들께 정말 큰 감동을 느꼈다. 솔로곡을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원했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꼈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늘 지지해주시는 팬분들께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부끄럽지 않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다.

뉴스1



‘라디오스타’ 웃음사망꾼 황제성→인간복사기 문세윤

‘프로받침러’ 최성민·독보적 대우 개그맨 김태균까지 알찬 재미



‘웃음사망꾼’ 황제성과 ‘프로받침러’ 최성민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아슬아슬한 생사 개그를 날아들던 황제성은 마침내 ‘웃음사망꾼’ 타이틀을 획득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가운데 진정한 신 스타일로 시선을 사로잡은 문세윤과 독보적인 대우 개그맨 김태균의 활약까지 더해져 알찬 재미를 선사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 (기획 안수영 / 연출 최행호)는 ‘슬기로운 개그생활’ 특집으로 김태균, 황제성, 최성민, 문세윤이 출연해 예능감을 과시했다. “제가 여기 다시 왔습니다!”를 외치며

돌아온 황제성이 웃음사망꾼 명맥을 벗고 개그감을 뽐냈다. 고라니 개인기에서 김태균에게 밀려 위기를 맞았지만 비장의 개인기로 만회해 나섰다. 배우 이경영 상대모사로 ‘아무 노래’ 개인기를 펼쳤고 웃음에 인색한 MC들까지 결국 박장대소하게 만들었다.

개인기와 함께 결혼 과정에서 아내의 배려에 눈물을 흘렸던 진솔 토크 역시 눈길을 모았다. 당시 그는 갸아할 빛이 있었고 결혼 후 어머니와 동생이 따로 이사 갈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9년 연애를 한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말할 수 없었다고. 그런 상황에서 황제성은 “나중에 어

머니한테 들었다. 아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살 집을 구해 드린 거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쓴 적이 없었다”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코미디 빅리그’의 아이디어뱅크 최성민 역시 한석규 상대모사 개인기와 함께 입담을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성민은 “‘코미디 빅리그’ 최다 우승자로 누적 우승 상금만 7억이 넘고, 실수령액은 3억 정도가 된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특히 최성민은 황제성과 절교 직전까지 갔던 웃픈 일화를 공개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사소한 말장난으로 시작된 다툼에 결국 황제성이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고 폭로했다. 황제성은 집까지 찾아갔던 이유에 대해 “난 남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다. 흐느끼면서 울더라”며 최성민의 우는 모습을 묘사해 폭소를 자아냈다.

문세윤은 화제를 모았던 봉준호 감독 아카데미상 수상 소감 패러디를 ‘라디오스타’ 식으로 재연, 스튜디오를 폭소로 뒤집어 놨다. 문세윤은 당시의 패러디 영상을 봉준호 감독이 언급했었다며 “봉 감독님의 한마디에 주변에서 대우가 달라지더라.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뒤통수 연기라도 가능하니 불러 주셨으면 좋겠다”고 농성을 떨며 웃음을 안겼다.

최성민, 황제성과 함께 ‘82괴플’을 결성하기도 한 문세윤은 이들의 특징을 똑같이 따라하는 ‘인간 복사기’로 활약했다. 최성민의 명대사 “내 편 들어주면 안 되냐”와 함께 그의 우는 모습을 완벽하게 모사하는 가 하면 황제성의 동공 확장 영혼 없는 리액션 등을 따라해 시선을 강탈했다.

김태균은 원조 고라니 개인기로 웃음사냥에 나섰다. 황제성의 고라니 개인기의 원조는 자신이라며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을 당시 우연히 탄생한 고라니 울음소리 개인기를 즉석에서 선보여 차원이 다른 원조의 위엄을 뽐냈다.

가족 사랑 토크 역시 남달랐다. 김태균은 “아버지가 여섯 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와의 추억이 없다. 제가 아버지와 못 해본 것들을 아들과 해보고 싶었다. 아들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안다”며 현재 중2인 아들 역시 아빠와의 시간을 좋아해 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아들이 태어나기 전 매일 적었던 일기를 엮어 태교책까지 펴냈다고 털어놓아 남다른 가족 사랑을 드러냈다.

정가는 “할 말도 못하고 무작정 참아...답답하다” 심경

방송인 정가은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했다.

정가은은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아니다. 참아라 참아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날 사랑하고 날위해서인건 아닌데 답답하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직업이 이래서, 때로는 할말도

못하고 때로는 무작정 참아야하고”라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정가은은 그러면서 “그래도 그래도 나를 믿고 믿고 또 믿어주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 힘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냅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지코 X 강다니엘, 콜라보 신곡 ‘리프레쉬’ 발표

웹시·스타쉽엔터테인먼트 협업

가수 지코와 강다니엘의 콜라보곡 ‘리프레쉬’ (Refresh)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지코와 강다니엘은 2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웹시X스타쉽 ‘2020 글로벌 K-POP 프로젝트-FOR THE LOVE OF 대한민국’의 곡 ‘리프레쉬’를 발표했다.

‘리프레쉬’는 흥겨운 멜로디와 전통적인 리듬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곡으로, 지코와 강다니엘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 더욱 청량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지코의 매력적인 랩과 강다니엘의 시원한 보컬은 곡의 매력을 한층 증폭시킨다. 세계적인 DJ 겸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와 지코가 공동 프로듀싱을 맡아 음악적 완성도를 더했다.

글로벌 음료 브랜드 웹시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함께하는 ‘2020 글로벌 K-

POP 프로젝트’는 다양한 장르의 K팝 아티스트들이 협업해 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FOR THE LOVE OF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발표한 ‘아무노래’로 신드롬급 인기를 얻으며 대세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로 맹활약한 지코와 글로벌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강다니엘이 합류해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더욱이 한국적인 이름이 돋보이는 콘셉트 포토와 뮤직비디오 티저를 연달아 공개, 독특한 신곡 색깔을 예고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웹시는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울인할 수 있기를 기원, 슬로건 ‘FOR THE LOVE OF 대한민국’을 통해 응원 메시지를 전한 만큼 지코와 강다니엘 역대급 대세 아티스트의 조합으로 탄생될 신곡 ‘리프레쉬’에 기대감이 모아진다.

‘나혼자산다’ 송승헌, 10년차 자취 일상 공개

내일 허당미+동안비결 공개

배우 송승헌의 리얼 일상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4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 (기획 안수영 / 연출 황지영, 김지우)에서는 10년차 자취러 송승헌의 하루가 전과를 탄다. 드라마와 영화를 벗어나 꾸밈없는 일상이 방송에서 최초 공개 되는 만큼, 송승헌이 보여줄 ‘현실 매력’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송승헌의 일상은 그림 같은 제주도를 배경으로 그려진다.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진 가운데 조깅과 낚시를 즐기며 도심에서 벗어난 낭만 가득한 하루를 보낸다고. 탁 트인 바닷가 앞, 매 순간이 화보 같은 송승헌의 힐링 라이프는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러나 순간 내면 물건을 고장 내는 송승헌의 예상 밖의 허당미가 웃음 버튼을 누른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외모와 달리 끊임없이 빼그덕거리는 시간을 보내며 숨겨온 인간미를 발산할 예정이다. 2% 부족한 허당미로 인해 요리와 운동, 낚시 등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간다고 해 반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진다.



또한 송승헌은 세월이 굴하지 않는 동안 외모의 비법을 공개한다.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금연”이라며 건강과 미모를 모두 잡은 비결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 금연과 더불어 의문의 가루들과 함께한 ‘송승헌표 웨이크’의 특급 레시피까지 공개, 무지개 회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한다.